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성(城)으로 가는 길은 없다

못한다. 종잡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는 ‘성(城)으로 표현되는 권력 본질과 이를 향한 욕망과 굴종의 모습이 얽혀 있다. 그래서 백여 년 전에 쓴 이 작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과 마주친다. 이 민낯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城)의 실체는 무엇일까? 성안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특권을 누리며 권력을 행사한다. 즉 성은 권력을 생산하는 공간의 상징이다. 성안의 권력은 성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성안에 속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문은 늘 폐쇄되어 있고, 성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다가가도 좁혀지지 않는다. 성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마을에 나타나지만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일은 똑같다. 자신들의 특권을 강조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강탈하고 일은 서로 미루면서 엄청난 서류 봉치를 자랑한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들은 곧 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마을 사람은 성안을 본 것은 고사하고, 가는 길조차 분명하게 모르지만 성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성이라고 불리는 곳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어쩌면 현실에서 더 많은 불가침의, 가까이 가는 길이 으폐된 권력의

성(城)들을 볼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견고하고 높은 성은 혼자 힘만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성을 지키다는 명분으로 돈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하수인과 이에 대한 침묵과 은폐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성은 오늘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우리 역시 성문을 열기보다는 오직 성안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성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피해자이긴 한가? 그렇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성의 존재를 믿는다. 이 믿음이 곧 성의 실체를 만들어 주며 성안의 권력 독점을 허용한다. 성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측량기사 한 사람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침묵과 배제의 공동체를 만든다. 성의 실체에 대한 비밀 유지가 곧 자신들의 생계와 목숨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성의 권력을 감싸며, 저항하는 소수를 마을에서 소외시켜서 기끼어 권력의 공범자가 된다. 성안과의 연줄을 구결하며,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운 성 안의 대리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모두에게 거부당한 측량기사는 혼자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보여 주는 측량기사의 선택은 우리의 현실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측량기사는 권력의 대리인이며, 실체인 사람의 정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떻게든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애인이 된 실체의 정부에게 “다리”를 낚 달라고 애걸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실체의 정부 또한 과거를 발판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한다. 측량기사는 “안”을 향한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권력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측량기사는 성안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학교의 잡일을 하는 관리인으로 밀려난다. 성에도 마을에도 속하지 못한 것이다. 측량기사의 욕망은 그저 외설스럽기만 하다.

성안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우리의 크고 작은 권력과 특권을 위한 것이라면 공허하다. 끝내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측량기사는, 권력의 실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 준다. 권력의 독점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이고 무기력한 집단적 미신이 만드는 그림자일 뿐이다. 한편 우리는 이 미신에 현혹되거나 이를 이용하지는 않는가?

해마다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의미 있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더 나은 새해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 희망은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측량기사와 결별할 용기가 있는가?

社說

박 대통령 모든 잘못 부인...국민이 기가 막혀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논란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어제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총 26쪽)를 통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행위 등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 이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모금의 ‘공범’이라는 검찰 공소 내용과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탄핵소추안과 관련,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최순실·차은택 등이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치적 신임 여부를 따지는 탄핵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길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눈물을 내비치며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모두 거짓이었음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박 대통령의 그릇된 현실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만약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 팀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원칙도 좋지만 따뜻한 배려의 행정 아쉽다

자녀 8명을 둔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현행 제도상 승합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사연(광주일보 16일자 6면)이 보도됐다. 출산 장려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동구에 사는 40대의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8명을 포함해 가족이 10명이다. 10살 미만 자녀만도 5명이나 돼 가족이 이동 한 번 하려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가야 할 형편이다. 이런 불편 때문에 승합차를 사고 싶어도 기초수급자는 장사라는 지 생업용이 아닌 이상 승합차를 살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포기해야만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침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승합차는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승용차만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승용차도 배기량이 1600cc 미만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 가격이 150만 원 미만만 소유가 가능하다. 새 차는 처음부터 살 수가 없고 10

년 이상 된 중형 이하 승용차만 살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로부터 수급비를 받는 만큼 어느 정도 제약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을 때문에 출산 장려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선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정에 자동차를 2~3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판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예이다.

장부나 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체가 있다. 이 40대 가장처럼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승합차 소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조 정 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증거의 왕

이다. 이런 것은 친구나 친족같이 친한 관계에서 빈번한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하자면, 차용증을 달라고 하면 대번에 “뭘, 차용증? 내가 나를 믿지 못해”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 예의 상하기 싫은 빌려주는 쪽에서 말도 못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빌린 쪽에서 값을 생각을 안 하니까 소송을 걸고 “빌려 줬네, 안 빌렸네”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이제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이가 되어 버린다.

대여금의 본질은 언젠가는 갚기로 약속한 돈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돈이 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갚기로 하였다든 그까지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이 없고 친구나 친구나 친족같은 관계라면 그 돈은 굳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하여 준 돈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나중에 꼭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용증을 받도록 하자. 친구든 친족이든 안면불수하고 차용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원수지고 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은 친구,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부모자식간에도 부끄러움 없이 소송을 거는 세상이다.

둘째,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부동산 거래의 업·다운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 명의신탁

이나 가장이혼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는 세무당국·금융기관·채권자 등 제3자를 속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당사자들끼리 사이가 틀어져서 소송이 걸리면 어느 한 쪽이 허위문서를 진정할 문서로 주장하게 된다.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그 문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통모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참으로 어렵다. 법정에서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러므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대로 정정당당하게 하자. 이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느니 뉘튼수를 맞았느니 하면서 억울해 하지 말고.

셋째, 문서가 있기는 한데 너무 애매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문구로 언어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다. 문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웬만한 거래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지만 국어실력과 같은 소양 부족이나 뭔가 세밀하게 따지고 들면 좀스럽다는 인상을 줄까봐 대법원에 대충 대응 넘어가는 기질 같은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만한 엉망인 계약서도 많은데, 결국 소송에 와서 같은 문구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게 된다.

실례로 청구금액이 몇 백억 원이고 당사자 중에는 공공단체도 끼여있는데 계약 당시에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 핵심적

인 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결국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계약서를 어느 변호사가 한 번이라도 보았더라면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중대한 계약을 변호사의 조력 없이 아마추어들끼리 되는데로 해치웠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당사자들끼리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며, 자신이 없거나 계약의 규모나 내용이 중대한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하자. 로스쿨을 만들고 변호사 수를 늘리고 한 것이 모두 변호사 문턱을 낮추어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건만, 아직도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인색하기만 한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범법이니 소송이니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소송이 걸려 법원에 갔었다하다는 것은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사실 원한을 풀어 미워하거나 대립하게 되다”라는 뜻인 “척지다”라는 말의 ‘척’은 조선 시대에 소송사건의 피고로 지목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송사를 벌이는 것은 원수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뜻이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에서 원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니 사전에 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거래함으로써 송사를 미리 방지한다면 인생의 낭비를 막는 유익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 고



김 중 범
광주시 남구 진월동

‘혼술남녀’

근해 집에 도착했지만, 고향에서 엄마가 보내준 반찬은 이미 상해버린 뒤였다. 딸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반찬을 보내줬지만 삶에 차이나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녀는 이내 감정이 북받쳐 혼자 술을 마신다. 눈물을 머금다가도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며 ‘화이팅’을 외치는 그녀의 모습이 애잔하기만 했다.

“내가 혼술을 하는 이유는 힘든 날 진심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픔을 나누기 보단 혼자 삭히는 것이, 이렇게 혼자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더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난 오늘도 이렇게 혼자 마신다.”

박하나가 맥주 마시는 장면에서 그녀의 독백이 흐른다. 이 장면을 본 뒤부터 나도 ‘혼술’을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 보면 술 한잔 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마시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그리고 끝지 아픈 격정적

리를 잊어버리기 위해 ‘혼술’을 찾기도 한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한잔 들이켜는 술 한잔과 혼자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은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자 은원이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춘이 살아가기엔 너무도 팍팍하다. 사회초년생 ‘노그래’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부산이 고향인 나는 대학진학을 위해 아무 연구도 없는 광주로 온 지 벌써 10년이다. 곧 서른을 앞두고 있지만 딱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서른 즈음의 나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괜히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대학 다니면서 받았던 장학금 대출도 당장 갚아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다 나를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취방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대출금을 갚고나면 한 달을 먹고 버티는 것도 빠듯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그리고 끝지 아픈 격정적

야할까 싶다.

“청년이 희망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청년들의 소박한 희망이 바로 그 사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른들이 말했던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결혼을 하고 내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단란하게 사는 ‘그저 평범한 삶’이 청년들의 소박한 희망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내가 이리려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나를 원망해야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해야하는 것인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 청년들에게 사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죄인이 울바라 헛값을 치루는 것조차 기대하지 못할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청년이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죽은 땅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11세기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퇴진을 요구했다. 왕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한 터라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물러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 명의 후보를 내세우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모실 테니 제발 퇴위하라고 압박했다.

왕은 자신을 탄핵한 백성들이 미운 나머지 골방이라도 먹이려는 심사로 왕 후보로 노예와 개를 내세웠다. 왕의 복수(?)에 기가 막힌 백성들은 차마 자신

왕이 된 개

들이 부리던 노예를 왕으로 삼을 수 없어 개를 선택하고 말았다.

왕이 된 개(Dog King)는 ‘사울 1세’로 불렸다. 사울 1세가 하는 일이라고는 궁궐 산책이 대부분이었다. 나랏일은 신하들이 대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각종 공문서 결재는 신하들이 준비한 먹물을 발에 묻혀 찍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울 1세는 왕 노릇을 오래 하지 못하고 늙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다. 개가 왕이 된 얘기는 헝가리·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의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벼슬에 오른 개 이야기기가 있다. 고려 25대 충렬왕 때의 일이다. 1282년 4월, 개경에 월인 모를 역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들이 숨졌다. 당시 개경에 진교개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수일 만에 주민 대부분이 죽거나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앞 못 보는 한 아이는 부모·친척이 모두 죽는 바람에 떠나지 못했다.

이때 아이 집에서 기르던 ‘복실이’라는 개가 입을 빈 바가지와 물고, 자신의 꼬리를 아이에게 잡도록 한 뒤

이들이 부리던 노예를 왕으로 삼을 수 없어 개를 선택하고 말았다.

왕이 된 개(Dog King)는 ‘사울 1세’로 불렸다. 사울 1세가 하는 일이라고는 궁궐 산책이 대부분이었다. 나랏일은 신하들이 대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각종 공문서 결재는 신하들이 준비한 먹물을 발에 묻혀 찍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울 1세는 왕 노릇을 오래 하지 못하고 늙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다. 개가 왕이 된 얘기는 헝가리·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의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전해지고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